

# 기회균형 선발전형 학생들의 대학만족도와 대학생활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University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of Students Admitted through the Affirmative Action Program

최윤희\*, 임준묵\*\*

한밭대학교 교육품질관리센터\*, 한밭대학교 창의융합학과\*\*

Yoon-Hee Choi(yooni@hanbat.ac.kr)\*, Joon-Mook Lim(jmlim@hanbat.ac.kr)\*\*

### 요약

본 연구는 H대학교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의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기회균형 선발전형 수립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의 입학성적과 대학성적간의 관계를 상관분석하였다. 둘째,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과 재학생들간의 만족도 비교를 위해서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의 대학적응 및 진로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의 고교 내신 성적과 대학성적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통해 학업수준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의 대학만족도가 전체 재학생 만족도 보다 높음을 통해 대학이 학생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실천 행동이 양극화되어 있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대학만족도 등을 고려할 때 기회균형 선발전형에 대한 확대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기회균형 선발전형 | 심층면담 | 대학만족도 | 진로준비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H University's students admitted through affirmative action progra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ffirmative action program enrollment students and all students were compar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methods.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students who entered the affirmative action program.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entrance score, the higher the university score for students in the affirmative action program. Second, the college satisfaction of students entering the affirmative action program is higher than that of students enrolled.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 the affirmative action program students were both active and not.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students can actively prepare for their careers in universities. Accordingly, the expansion of the affirmative action program is likel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 keyword : | Affirmative Action Program | In-depth Interview | University Satisfaction | Career |

접수일자 : 2022년 07월 22일

수정일자 : 2022년 08월 22일

심사완료일 : 2022년 09월 08일

교신저자 : 최윤희, e-mail : yooni@hanbat.ac.kr

## I. 서론

교육부는 2021년 12월에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입법예고하고 2022년 2월에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에 관련한 '고등교육법 제 34조의 8'을 신설하였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통해 교육부에서는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기회의 평등, 교육조건 평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대학입학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서 대학 입학기회를 넓혀줌으로써 교육기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개인에게는 보상의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집단의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각 대학은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입학전형에 의해 개인의 학업적 능력과 여러 전형 요소들을 반영해서 다양한 입학전형을 수립하고 있다. 입학전형 수립의 원칙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전형의 원칙은 「고등교육법」 제 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34조 제 1항에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른 학생 선발을 강조한다. 특별전형의 원칙은 「고등교육법」 제 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34조 제 2항에서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함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통합전형은 그동안의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특별전형'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지역균형 선발전형'이라는 용어가 '기회균형 선발전형'등으로 불리면서 권고사항이었던 교육기회에 대한 보장적 평등을 법제화 시킨 것일 뿐 아주 새로운 전형은 아니다. 이처럼 기회균형 선발전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이지만 대학에서 기회균형 선발전형에 의한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여러 입학전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1].

기회균형 선발전형의 학생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사용한 연구에 의하면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입학생들을 사회경제적 지위의 특성과 개인의

역량으로 구분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국은 소득수준으로 보는 것과[4] 일맥상통하다. 게다가 학업성취도가 졸업후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5]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여러 입학전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1]. 그러므로 기회균형 선발전형이 불리한 조건의 학생들에게 대학입학 기회를 넓혀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통해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 기회균형 선발전형의 실질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3][6]연구는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면담한 대표적인 연구로 볼 수 있으나 전체 재학생과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특정 대학에서 소수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 지역별, 설립유형, 입시결과에 차이가 있는 대학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활'을 주제로 하는 관련 연구를 보더라도 기회균형 선발전형의 학생들이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의 특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7]. 이와 같이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의 특징은 대학의 유형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H대학의 기회균형 선발전형 수립에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전에 위치한 국립 H대학 기회균형 선발전형 학생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재학생들과의 만족도등을 비교해보며 심층면담을 통해 대학생활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 선발에 기여하는 기회균형 선발전형 수립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입학전형 제도 및 변천

대학입학전형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대학입학전형의 변천과정 분류는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분류자별로 각각의 관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창동[8]은 정치사회적 측면, 교육사회적 측면, 대학입시제도 측면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기준들이 결국에는 평가의 주도권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시험 유형별로 특징을 요약하면 ①대학별 단독 고사제는 국가가 입시를 관리하였으나 입시주체는 각 대학으로서 정부당국의 규제없이 입학사정이 이루어졌다. ②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의 대학별 고사 병행제는 국가연합고사와 대학별 본고사를 병행하였다. ③대학별 단독 시험과 무시험 병행제는 대학별 본고사, 고교 내신 성적, 신체검사, 면접, 대학진학적성검사로 이루어졌다. ④대학입학자격 국가 고사제에서의 대학입학자격 국가 고사는 대학입학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며 동시에 국가고사 성적으로 대학입학이 결정된다. ⑤대학별 단독 시험제는 대학별로 이루어진 선발시험이었으며 대학별로 신체검사, 면접, 고교내신성적, 진학 적성검사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⑥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 병행제는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시행하였다. 대학입학 예비고사에 합격해야만 대학별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대학입학 예비고사는 대학별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의 형태이다. ⑦대학입학 예비고사와 고교내신 병행제는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 예비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성적을 반영하였다. ⑧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병행제는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자격고사화를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대학입학 학력고사'로 변경했다. ⑨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논술고사 병행제에서는 논술고사를 추가해서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⑩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및 면접 병행제에서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선지원-후시험 제도를 시행하였다. ⑪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내신 및 대학별 고사 병행제에서의 핵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핵심은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고등사고능력을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⑫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중생부) 및 대학별 고사 병행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점수, 학생부, 대학별 고사를 조합해서 선발할 수 있는 전형이다. ⑬대학수학능력시험과 선택중심교육과정, 무시험 전형제, 학생부 및 대학별 고사 병행제의 특징

은 무시험 전형제와 다양한 전형자료의 활용에 따른 대학의 선발 자율권 보장이라고 볼 수 있다. 김순남[9]이 1995년 이후 대학입시의 특징을 정권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정권별 교육개혁에 따른 대입목표와 내용 및 정책수단'에 의하면 대학입시제도는 교육목표의 도달과 고교교육정상화를 주요 근간으로 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인재선발 방법으로 다원화된 방법이 제안되면서 당연히 공정성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고 이는 대학입학에서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 강창동과 김순남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분류에서는 특별전형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학입학전형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변별력에 대한 문제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모집시기 차이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 학사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10].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방안'이라는 공식문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의 특성화와 전문화의 출발이라고 평가하였다[11]. 결국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관심은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느냐에 관련한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것이다. 대학입학전형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평가하느냐에 관련한 내용이고, 결국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는 평가방법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보고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노력, 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선발인지 학생부종합 위주의 선발인지에 대한 관심에 비하면, 대학 교육 기회의 확대나 대학교육의 보상적 평등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음 절에서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2. 교육기회확대가 미친 영향

기회균등의 인식을 교육기회, 취업기회, 고용기회균등으로 볼 수 있다.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회적 지위모델에 의하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기회가 균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12]. 이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부터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기회균등의 의미를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따라 모

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초점을 두면 이미 기회균등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조건을 갖추는 것이 특정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동일한 출발선에 있다고 해서 동등한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4]. 20세기에 이르러 모든 나라의 교육제도와 교육기회는 확대되었다. 초등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교육 수준에서의 학교교육 참여율 증가는 대부분의 선진 사회에서 큰 성과에 해당한다. 학교교육 참여율 증가는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부적으로 사회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은 여전히 높고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위계층의 교육 참여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이후의 교육기회의 확대는 계층간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상위계층의 자녀들이 하위계층에 비해서 교육기회 확대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기회의 확대가 반드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계층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오히려 교육 시스템 때문에 더 지속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즉 교육기회 확대의 시스템은 교육기회의 평준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13]. 한국사회의 동향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응답자의 세대를 3세대로 구분해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출신배경의 영향을 비교해본 결과[14],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가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1세대로 명명한 1943-1955년 출생집단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가 자녀의 지위획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출신배경의 영향은 자녀의 대학이상의 진학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기회의 확대는 중등교육의 기회확대까지만 영향을 미쳤을 뿐, 고등학교 교육기회나 대학교육의 기회확대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이 시기의 출생자들에게는 중등교육 단계가 당시의 교육계층화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3세대는 1세

대의 자녀 세대에 해당하는데 3세대의 고등교육 진학율은 1세대와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세대간 교육기회의 확대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세대(1956-1965년 출생자)와 3세대(1966-1975년 출생자)의 직업지위 획득모형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직업지위가 직접적인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약화하는 대신에 자녀에 대한 교육수준을 매개로 간접적인 세습 경향이 강화하는 현상이었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부모 자신의 계급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강화되었다. 결국 부의 직업과 교육의 정도가 본인의 교육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SES라고 명칭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학하는 고등학교 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경로에서 상당한 SES의 효과가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5]. 이러한 결과는 과거 한국사회에서의 계급이동이 직접적 세습과 교육을 매개로 한 세습이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최근에 오면서 교육을 매개로 한 세습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3. 기회균형 선발전형의 의의

2021년 4월 29일 발표된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16]. 첫째,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의 선발 기초를 유지한다. 둘째,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정원내의 선발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2023학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대학의 고른기회 특별전형이 2021학년도에는 47,606 명, 2022학년도에는 53,546명, 2023학년도에는 55,27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회균형 선발전형'의 도입배경과 현재 교육부의 대학입시 선발기본사항을 종합해볼 때 기회균형 선발전형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기회균형 선발전형에 대한 청사진은 2012년 9월 17일 국회에서 현재의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모여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

하였다. ①교육이 계층의 고착화를 강화시키고 있음 ② 단기 성과주의 교육으로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③비효율적 사교육으로 민생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④협동을 통한 고차원의 성과를 내는 교육이 부실화 됨 ⑤교육이 학벌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회균등선발제의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이후로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현재의 '기회균형 선발전형'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기회균형 선발전형의 실시 및 확대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기회균형 선발제' 실시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7]. 첫째, 기회균형 선발전형이 교육평등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의 실천을 교육불평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기회균형 선발전형을 보상교육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특정한 사람들이 겪으면서도 개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인 장애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회균형 선발전형은 대학입학과정부터 배려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보상교육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기회균형 선발전형이 다양한 집단의 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해당한다. 다양한 집단 선발을 통한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회균형 선발전형을 보상적 교육의 개념보다 한 차원 높게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육부가 2021년 12월에 사회통합전형 범제화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발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이가 있는 점은 이제봉[17]은 기회균형 선발전형의 대상자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교육부(2021)에서 발표한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형전형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전형을 포함시켰다. 지역균형전형은 교육적 보상이라기보다는 비수도권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상적 지원의 효과성은 불리한 조건의 집단에게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자원의존적 개입(resource-dependent interventions)의 효과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과 조

건이 유리한 학생들의 집단을 비교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그 효과성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자원을 충분히 투입할수록 성취도가 높은 집단보다는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었다[12].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들의 다양성을 사회적 배경의 다양성과 개인역량의 다양성으로 정의해볼 수 있으며 사회적 배경의 다양성은 주로 소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4]. 결국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득수준으로 보고 있다. 기회균형 선발전형을 통해 긍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학생활에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유지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대학 적응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으로써 심리적, 관계적, 학업적 어려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 실제로 심층면담에 참여한 14명의 학생들 대부분이 빈곤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입학당시에는 열등감으로 위축되어 있었으나 대학생활을 통해 학업의 어려움을 주도적으로 극복해가면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기회균형 선발전형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을 대학생활 내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정을 통해 개척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3]

#### 4. H대학교 기회균형 선발전형 운영현황 및 특징

H대학교의 기회균형 선발전형에 의한 3년 동안의 입학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18].

H대학교는 2021년 기준으로 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99%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지역중심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H대학교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기회균형 특별전형 중 서해 5도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고 있다. [표 2]에서는 H대학교와 규모 및 특성이 비슷한 주요 5개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결과를 비교해보았다. H대학교와 가장 다르게 보이는 부분은 음영처리한 부분이다.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을 대학별로 비교해보면, C대학교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 8명으로 타대학에 비해서 매우 적다. A대학교는 118명으로 H대학교 79명보다 39명이 더 많다. '북한이탈 주민전형'

표 1. 2019~2021학년도 H대학교의 기회균형 선발결과

입학 연도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결과															기회균형 선발비율 (%) (D/A*100)
		합계 (D=B+C)	정원외												정원내		
			소계 (B)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단원고	소계 (C)	고른 기회 대상자	대학 독자 적 기준	
2021	2104	424	181	20	1	3	13	79	57	0	8	0	0	243	243	0	20.2
2020	2070	394	177				14	75	57	0	8	0	0	217	217	0	19.0
2019	2071	369	170			18	23	69	57	0	3	0	0	199	199	0	17.8

표 2. 주요 대학과 H대학교의 기회균형 선발결과와 비교(2021학년도)

대학 구분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결과															기회균형 선발비율 (%) (D/A*100)
		합계 (D=B+C)	정원외												정원내		
			소계 (B)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단원고	소계 (C)	고른 기회 대상자	대학 독자 적 기준	
H	2104	424	181	20	1	3	13	79	57	0	8	0	0	243	243	0	20.2
A	3176	590	274				41	118	105	0	10	0	0	316	316	0	18.6
B	3839	737	198			34	36	8	108	0	10	0	0	539	487	52	19.2
C	3026	460	202			53	29	27	67	0	26	0	0	258	258	0	15.2
D	1865	419	124			15	10	33	56	0	10	0	0	295	292	3	22.5
E	1308	273	89			0	0	0	15	27	47	0	0	184	184	0	20.9

은 E대학에서만 27명을 선발하였다. 대학독자적 기준은 B대학교만 실행하였는데 52명이다. 타 대학들이 0명인 것에 비하면 매우 많은 수라고 볼 수 있다. H대학교의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형유형별 전형명목 지원자격, 전형방법 등에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다. 2023학년의 전형방법에서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는 것이 이전 전형방법과 다른 점이다. 입시과정 및 결과의 특징으로는 정원내-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의 경쟁률이 2.0:1인 것에 비해서 등록률이 28.6%로 저조하며, 이것은 다른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등록률이 90%가 넘는 것(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제외)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등록률이다.

### III.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본 연구는 첫째, 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의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의 입학성적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의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체 재학생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셋째,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 1.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의 경향 분석

##### 1.1 분석대상

기회균형 입학생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H대학교에 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에 입학한 1,201 명의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1.2 분석자료

H대학교 입학본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는 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고른기회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모집연도, 모집시기(정시/수시 구분), 정원내/외 구분, 전형유형,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당시의 과목별(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산출성적과 총점전체, 평점평균, 현재의 학적상태가 포함되어 있다.

표 3.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의 입학연도에 따른 입학전형별 분포 N(%)

입학 연도	수시										전체
	정시	국가보훈	다문화	사회적배려자	특성화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특수교육	농어촌	고졸재직자	
2016	0	4	33	30	15	11	0	1	36	130	
2017	0	9	0	28	17	0	90	1	33	178	
2018	21	7	0	7	0	14	79	1	51	180	
2019	12	9	0	15	0	19	109	2	50	219	
2020	4	8	0	22	0	13	128	7	56	238	
2021	4	2	0	22	0	13	152	8	55	256	
전체 (%)	41 (3.4)	39 (3.2)	33 (2.7)	124 (10.3)	32 (2.7)	73 (6.1)	558 (46.5)	20 (1.7)	281 (23.4)	1,201 (100)	

1.3 자료의 수집과 분석

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자료는 H대학교 입학본부에서 제공해 주었다. 참고로 H대학교는 입학당시에 연구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를 받아두었으며,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였음을 밝혀둔다. 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 4]에서는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의 입학성적과 평점평균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상관관계 표를 이해하기 위해 변인 값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겠다. 입학생들의 국어등급, 수학등급, 영어등급, 과학등급은 고교 내신 성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등급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입학성적은 고교 내신 성적을 각 조건에 맞게 산출한 것으로서 입학성적이 높을수록 고교 내신 성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학성적은 대학에서 취득한 대학평점평균을 의미한다. 이후의 상관관계 표에서는 이에 따라 해석함을 일러둔다.

표 4.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 전체의 입학성적과 평점평균의 상관관계

	국어등급	수학등급	영어등급	사회등급	과학등급	입학성적
국어등급						
수학등급	0.62**					
영어등급	0.69*	0.63*				
사회등급	0.83**	0.56**	0.63*			
과학등급	0.78**	0.72*	0.60	0.77**		

입학성적	-0.36**	-0.33**	-0.38**	-0.33*	-0.34**	
대학성적	-0.10**	-0.05	-0.03	-0.10	-0.11*	0.09**

\*\* p<0.01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의 과목별 입학성적과 대학 성적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고교의 국어, 사회, 과학 과목은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수학과 영어 성적은 대학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교 내신의 총점인 입학성적과 대학성적간에는 .09의 유의한 (p<0.01)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입학성적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대학에서의 평점평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기회균형 전형(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입학생) 학생과 재학생들의 만족도 비교

2.1 설문조사 대상

기회균형 전형(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입학생) 중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분포와 평점평균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설문조사 참여자의 입학연도에 따른 입학전형별 분포 N(%)

입학 연도	입학전형구분									전체
	정시	국가보훈	다문화	사회적배려자	농어촌	특성화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특수교육	
2016	0	0	1	2	0	1	0	0	0	4
2017	0	0	0	1	2	0	0	2	0	5
2018	0	0	0	1	1	0	2	3	0	7
2019	0	0	0	4	0	0	0	9	0	13
2020	0	0	0	3	1	0	0	9	3	16
2021	0	0	0	1	1	0	1	8	5	16
N (%)	0 (0)	0 (0)	1 (2)	12 (20)	5 (8)	1 (2)	3 (5)	31 (51)	8 (13)	61 (100)

표 6. 설문조사 참여자의 학적상태 및 학과별 분포 N(%)와 평점

학적 상태	공과 대학	정보기술 대학	건설환경 조형대학	인문사회 대학	경상 대학	미래산업 융합대학	전체
재학	16	10	13	3	1	0	43
휴학	6	3	2	2	2	0	15
수료	0	0	0	0	0	0	0
졸업	1	1	0	0	1	0	3
사례수(%)	23 (38)	14 (23)	15 (25)	5 (7)	4 (6.35)	0	61 (100)
평점	3.40	3.39	3.47	3.46	3.44	-	2.75

### 2.2 설문조사 도구

기회균형 전형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도 H대학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 문항의 일부를 사용한 이유는 재학생과 기회균형 전형 학생들의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문항과 척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재학생과 기회균형 전형 학생들의 만족도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만족도 조사영역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사용한 분류체계를 따랐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분류 체계에 따라 [표 8]에 제시하였다. 또한 재학생과 기회균형 전형 학생들의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H대학교 기획처에서 실시한 '2020년도 H대학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의 결과를 재학생의 만족도 결과로 사용하였다. H대학교 고객만족 조사는 매년 재학생, 졸업생, 교수, 직원/조교, 산업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재학생 대상의 결과만을 반영하였다. 재학생과 기회균형 전형 학생들의 평균을 비교할 때는 아래와 같이 환산해서 비교하였다. H대학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점 척도를 다음의 표와 같이 100점으로 환산해서 제시했기 때문이다. 졸업생 대상으로는 추가문항을 제작하였다.

표 7. 5점 척도의 100점 환산 기준표

5점 척도 평가			100점 환산
매우 그렇다	5점	⇒	100점
그렇다	4점	⇒	75점
보통	3점	⇒	50점
그렇지 않다	2점	⇒	2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0점

### 2.3 자료의 수집과 분석

설문조사를 위해 입학본부의 협조를 받아 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입학생 전원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받았다. 조사대상자 전원에게 구글폼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3일 간격으로 3차에 걸쳐 문자를 발송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1,201명 중 최종적으로 6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질문은 '학적 상태'를 졸업생으로 입력한 학생들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하였다.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문항별 만족도 평균

중분류	문항	재학생		기회균형
		2019	2020	
전공교육	1. 우리 학과의 전공수업은 전공분야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71.8	69.5	80.2
	2. 우리 학과의 전공교육 과정은 사회적 변화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63.3	63.6	73.0
	3. 전공 과목 교수진은 학업과 진로 상담에 적극적이다	66.4	67.0	71.0
	4. 지난 학기와 비교하여 전공 분야 관련 지식과 능력이 향상되었다	70.0	69.8	76.2
교양교육	5. 우리 학교의 교양수업은 폭넓은 기초 교양 습득에 도움이 된다	55.2	60.3	65.5
	6. 우리 학교의 교양교육 과정은 사회적 변화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55.0	59.4	63.1
비교과교육	7. 나는 우리 학교의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에 비해 비교과 기초역량이 향상되었다	53.9	60.4	67.7
	8. 우리 학교의 비교과 교육은 다양하다	53.3	59.7	63.9
취업지원	9. 취업 및 창업 상담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알려 준다	63.3	63.8	74.2
	10. 학과의 취업 및 창업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59.8	59.9	66.1
어학연수	11. 해외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에 대한 참여 기회가 잘 제공되고 있다	58.7	58.9	61.1
현장실습	12. 인턴십, 현장실습에 대한 참여 기회가 잘 제공되고 있다	58.4	60.2	61.7
장학금	13. 장학금 혜택이 많다(금액적인 측면)	60.0	60.1	64.5
	14. 장학금 지급 기준이 합리적이다	59.6	60.1	69.4
	15.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다(수혜자 수 측면)	58.7	59.5	64.1
복지혜택	16. 건강, 심리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잘 이뤄진다	52.8	56.8	64.1
만족도	17. 나는 H대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61.8	64.5	73.0



[표 8]에서는 H대학교 재학생 전체의 만족도와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61명 학생들의 만족도를 문항별로 비교해서 제시하였다. 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의 문항별 만족도는 모든 문항에서 재학생 전체 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학생 전체의 만족도와 차이가 10점 이상인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분류-전공영역에 대한 문항 중 '우리 학과의 전공수업은 전공분야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의 만족도가 80.2로 재학생 전체 만족도와 차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중분류-취업지원 '취업 및 창업 상담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알려 준다'의 만족도가 74.2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도 재학생 전체의 만족도는 64.5, 기회균형 전형 학생들은 73.0으로 나타났다. 기회균형 전형 학생들의 문항별 만족도 중 가장 낮은 문항은 중분류-어학연수 '해외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에 대한 참여 기회가 잘 제공되고 있다' 문항인데 본 문항은 재학생 전체의 만족도에서도 58.9 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평점과 영역별 만족도간의 상관

	전공 교육	교양 교육	비교과 교육	취업 지원	어학 연수	현장 실습	장학금	복지 혜택	전반적 만족도
상관 계수	.13	-.14	-.19	-.04	-.10	-.15	-.08	-.04	-.02
평점	N 63	63	62	62	61	62	62	62	63

위의 표에서는 평점과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역별 만족도를 비교해보았다. 평점과 영역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의한( $p < .05$ )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 3. 기회균형 전형(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입학생) 심층면담

#### 3.1 연구참여자

표 10. 심층면담 참여자

연번	입학 연도	모집 시기	정원 내외 구분	전형유형	모집단위	평점	학적 상태	비고
1	2020	수시	정원내	지역인재전형	전기공학과	3.09	재학	
2	2016	수시	정원내	고른기회 (다문화다자녀)	정보통신공학과	3.72	재학	

3	2021	수시	정원외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일본어과	4.25	재학	면담X
4	2021	수시	정원내	지역인재전형	건설환경공학과	2.97	재학	
5	2019	수시	정원외	농어촌학생전형	기계공학과	3.38	휴학	
6	2021	수시	정원외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컴퓨터공학과	2.86	재학	
7	2021	수시	정원외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기계공학과	2.66	재학	
8	2018	수시	정원내	지역인재전형	화학생명공학과	3.55	재학	
9	2020	수시	정원내	지역인재전형	건축학과(5년제)	4.33	재학	
10	2020	수시	정원내	지역인재전형	설비공학과	2.73	재학	
11	2020	수시	정원내	지역인재전형	신소재공학과	4.42	재학	

표 11. 심층조사 참여자의 학적상태 및 학과별 분포 N(%)와 평점

학적 상태	공과 대학	정보 기술 대학	건설환경공학 대학 (자연)	건설환경공학 대학(디자인)	인문 사회 대학	경상 대학	미래 산업 융합 대학	전체
재학	4	3	2	-	1	-	-	10
휴학	1	-	-	-	-	-	-	1
수료	-	-	-	-	-	-	-	0
졸업	-	-	-	-	-	-	-	0
전체	5 (45.45)	3 (27.27)	2 (18.18)	0 (0)	1 (9.09)	0 (0)	0 (0)	11 (100)
평점	3.45	3.41	3.41	-	4.25	-	-	3.63

심층면담 조사를 위해 구글폼을 이용한 설문조사시 심층면담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심층면담 조사에 동의표시를 요구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 중 11명이 동의표시를 하였으며 그 중 심층면담에 참여한 학생은 10명이었다.

#### 3.2 면담도구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지는 [3]에서 사용한 문항의 영역을 참고해서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역별 질문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2. 영역별 질문내용

구분	질문내용
지원동기	-학과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요? -H대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장의 정도	-대학에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자신이 꿈꾸던 대학생활의 방해요소는 무엇인가요? -대학은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했나요?
어려움 인지 및 극복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대학에서 학업의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진로계획	-취업 등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계획하고 있나요? -계획 실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취업 준비에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대학의 지원	-대학에서 지금까지 지원 받은 영역 중 도움 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더 확대하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지원 영역 중 효과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	--

### 3.3 자료의 수집과 분석

면담은 전화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18분 내외였다. 면담을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면담시간을 미리 알려서 면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통화를 시작할 때 자료수집 및 정리를 위해 통화가 녹음되고 있는 것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의 전체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음성을 문자로 전환해주는 어플을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면담 참여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자료처리는 다음 표와 같이 개방코딩으로 심층면담에서 질문에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해당내용'은 심층면담 원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느끼고 처해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현상에 해당하는 응답내용들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해서 연구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하위범주'로 요약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상위범주'로 개념화시켰다. '영역'은 반구조화된 심층면담 질문을 위해서 미리 설정한 것이다.

표 13. 대학생활 개방코딩 범주

영역	상위범주	하위범주	해당내용(심층면담 원자료)
(1) 지원동기	내부요인	적성과 성적	-적성과 성적 고려
		거주지와의 거리	-집과의 근거리
	외부요인	취업률	-취업률 높음
국립대		-대학준입의 안정성 -등록금이 저렴 -지원사업과 동아리 활동 다양성	
(2) 대학교육이 준 기회	개인활동	다양한 경험	-공모전 출전 등
		대학환경	대학에 대한 이미지 -대학에 대한 자부심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교수진의 노력
(3) 대학생활에서 어려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로 인한 수업방식의 변화	-비대면수업의 비효율성
		교우관계	-복학후 교우관계
	통제 가능한 상황	통학거리	-통학거리
(4) 어려움	그냥 놔두기	학업	-전공과목에 대한 어려움 -교양과목에 대한 어려움
		그냥 놔두기	-그냥 그대로 수용

극복	소극적 노력	학교 외부 자원을 이용함	-학원 다닐 계획
		학교 내부 자원을 이용함	-교수, 선배 등 활용
(5) 진로계획	진로 탐색	진로확정여부	-대학원진학 -군무원 준비 -뚜렷하게 정한 것 없음
	진로 준비	자격증 탐색	-컴퓨터 활용 1급 -토익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교내 활동	-학점취득 노력 -산학협력단 활동
진로장애	취업 정보	-취업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함 -적극적 정보제공 희망 -취업스터디 인기를 바람	
(6) 대학에서의 지원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저조한 관심	-일정 농심, 신청 후 불참 -이유없음 -시설 이용 정보 부족등으로 활용 못했음
		소극적 참여	
	참여 프로그램 종류	학생복지	-근로
		비교과프로그램	-사제동행, 기초학습클리닉
의견	장학제도	-장학금	
	확대희망 영역	-의견없음	
(7) 대학만족도	교수와의 관계	효과성 낮은 영역	-의견없음
		교수와의 관계	-교수진의 노력과 상담 좋음
(8) 자유회견	학교 평판	학교 평판	-학교의 평판이 좋다 vs 나쁘다
		교양과목 영역의 다양화 -교양과목 수강기회 확대 -비교과프로그램에 출석인정 등의 방법으로 강제동원 하지 않기를 바람 -통학버스 있으면 좋겠다(이미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음에서는 영역-상위범주-하위범주에 따른 분석내용을 제시하였다.

#### (1) 지원동기

##### ① 내부요인

학생들은 학과 선택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대학 선택에서는 합격가능성과 통학거리가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 B : 성적 때문에 기계는 못 갔고 컴퓨터 공학과나 관심 있는 분야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학생 D : 그냥 그 성적에 맞춰서 들어간 것 같아요. 어.. 대전 살아가지고 집에서 지금 가까운 쪽 가까운 학교로 선택하게 된 거 같아요. 그 가까운 게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성적에 그냥 딱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 ② 외부요인

학생들이 전공과 대학을 결정할 때는 H대학교가 국

립대학이라는 설립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국립대가 국가 수준의 사업에서 유리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부터 취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학교의 평판과 인지도가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학생 B : 국립대는 등록금자체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지원 사업도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더 폭넓은 거라고 생각했고 인식자체도 사립대보다는 국립대가 더 좋으니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 E : 국립대이니까요. 국립대는 솔직히 장학금 지원을 좀 많이 대전에서 국립대라면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 (2) 교내외 활동 및 시설 이용

### ① 참여도

학생들은 대학의 교내외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과 공모전 출전 등에 관심이 많았으나, 면접자 중에서는 동아리 활동 중인 학생이 한명도 없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COVID 19라는 상황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보고 싶지만, 고민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많은 것으로 보아 활동에 대한 희망의 정도와 실행에 대한 의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연구실 경험이 진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연구실 생활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도움과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학생 C : 음 학교에서 열리는 대회 그런 걸 해 보고 싶었는데 아직 안 해봐서. 크게 엄청 크게 생각해 본적은 없어가지고.

학생 H : 저는 지금 연구실 들어가게 됐는데, 연구실은 이제 교수님 밑에서 이제 선배들이랑 동료들이랑 교수님이라 같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좀 교수님이라 대화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부분도 많아서 연구실이 지금 저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3) 대학생활에서의 어려움

#### 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 관련한 사항들만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COVID 19 상황에 대한 것이다. COVID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집중도, 이해력 등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에서 가장 힘들었고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 J :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해가지고. 어... 아무래도 대면으로 할 때보다 조금 수업이 좀 어려워지는... 뭔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못하니까.

학생 C : 초반에는 학교도 못가고 비대면으로 해서 불편함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좀 잠잠해 지던 시기에는 가서 수업 듣고 교수님께 교수님이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거 같아요.

#### ② 통제가능한 상황

대학생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려움의 현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 첫 대답이 "그런 것은 별로 없다"라는 반응이었다. 면담자는 "교우관계나 학업 등에 관련한 어떤 내용도 좋다"라는 추가 질문으로 대부분의 응답을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주로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전공 교과목 자체보다는 전공 관련한 과목을 고등 학교에서 이수하지 않아 기초교양교과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전공부적합의 이유로 고민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 C :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이때는 그 과학 쪽을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물리를 안 배웠거든요. 근데 2학년 때 이제 물리수업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웠어요.

학생 I : 과가 잘 안 맞는 것 같다해야 하나. 3학년까지는 다녀봐야 제가 원하는 이유가 3학년에 있으니까

3학년에 다녀보아야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4) 어려움 극복

① 그냥 놔두기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방식 중에는 내 탓을 하거나 대응에 무관심한 경우가 있었다. 전공수업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 A : 어려운 건 전공수업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또 어려운 것 딱히 없었던 거 같아요(어려운 공부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학생 I : 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아~ 수업이 나랑 내용이 잘 안 맞네. 재미도 없고 살짝 그런 게 있다고 해야 되나. 어.. 그냥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건 다 핑계인 것 같고 응 그냥 뭔가 그냥 과 공부도 잘 안 맞다보니까.

② 소극적 노력

전공과목이 어렵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스스로 보충하기 위해서 학교 밖의 학원을 알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공 관련한 어려움에서 학생들이 학원을 언급하거나 관련된 강의를 찾아 듣는 경우는 화학, 물리와 같은 전공 관련한 기초교양교과목인 경우가 많았다.

학생 E :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따라가기에 어려운 면이 있기는 있어요. 어... 일단 제가 나중에 학원을 잡아냈거든요. 방학기간이라도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 언어 컴퓨터 언어. 다닐 예정입니다.

학생 C : 그 보충으로 혼자 공부하고 이제 다른 과학 강의 찾아보면서 안 배웠던 배분을 좀 보려고 했던거 같아요. (학업을 도와주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이용해봤나요?). 네, 그거는 아직 안 해봤어요. 큰 이유는 없어요

(5) 진로계획

① 진로탐색

진로를 확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2명이었고 2명 모두 연구실(랩)에서 진로탐색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진로를 정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연구실 활동을 통해 많은 영향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G :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과 랩실을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선배들이랑 다 과학이론 이런거랑 공부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선배는 모르는 거 물어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대학지원 프로그램 찾아보았나?). 아니요 그런 건 잘 몰랐어요

학생 I : 어...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없어서 사실 더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딱히 그거에 대한 말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 목표를 찾는 거 말고는 딱히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② 진로준비

아직은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자격증과 학점취득을 언급하였다. 학생들은 갖추고 있어야 할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진로에 대한 걱정과 관심에 비해서는 진로설정 및 준비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들이 대학 및 학과에 취업정보 관련해서 요구하는 것은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보 제공이었다. 예를 들면 대중들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 알찬 직군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전공 관련한 업체에 대해 세부적이고 밀접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학생 J : 지금하고 있는 노력.. 토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 어... 일단 그 두 개 정도 생각을 해놓고 있어요.

학생 E : 일단은 어.. 2, 3학년 때는 자격증보다는 학점을 많이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과목을 더 많이 공부할 계획입니다.

## ③ 진로장애

학생들은 진로 결정과 취업 준비에서의 자신의 약점과 불리함을 목표없음과 정보부족 등으로 보고 있었다.

학생 H : 뭔가 그런 일자리에 대한 어떤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정보가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학생 I : 어...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없어서 사실 더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딱히 그거에 대한 말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 목표를 찾는 거 말고는 딱히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 (6) 대학에서의 지원

## ① 지원프로그램 참여 경험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 참여에 경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경우와 참여했다라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학생 I : 그거 맨날 참여하려고 신청을 해놓고서 그날 까먹어가지고 맨날 못 들어가요. 신청을 해 놓고서 캘린더나 그런데 적어놔야 됐는데. 물론 제 잘못도 있는데 저는 사실 한 번 더 말해주거나 그럴 줄 알았거든요. 문자로 보내주거나 당일 날에 그런 문자는 안 오더라고요. 당일 날에 물론 제가 그거를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학생 C : 네 그거는 아직 안 해 봤어요. 큰 이유는 없어요.

## ② 참여 프로그램 종류

학생들은 주로 학업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초클리닉에 대한 언급이 많았었고, 참여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사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H대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적인 이수가 졸업인증과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참여 경험이 있는 비교과프로그램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학생 J :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미적 물리 이런 거 클리닉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가지고 근데 막 전공과목 이런 거는 엄청 어려운데 물어볼 것도 별로 없어서. 그런 것도 살짝 클리닉처럼. 학생들끼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물어보기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학생 H : 네 유닛 같은 거 활동했었는데. 어 사제 동행 프로그램 말고는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없는 거 같아요.

## (7) 대학만족도

## ① 교수와의 관계

교수들의 강의와 학생지도와 수업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지지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B : 저는 충분이 많이 도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선 교수님들이 약간 어... 저희를 많이 가르쳐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진짜 충분히 좋은 데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 J : H대학교 근데 사실 교수님들이랑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교수님들이 되게 상담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학생입장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 ② 대학평판

H대학교 학생들은 교수진의 높은 수준에 의한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외부에서의 긍정적 평판과 부정적 평판 모두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자부심과 우려를 갖고 있었다.

학생 I : 어쨌든 무슨 수치가 낮다고 해서 다른 학교랑 비교할 때 그런 게 낮아서 되게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불리하다 이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심층면담 결과,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은 입학 당시에는 적성을 고려해서 국립대학이라는 장점에 기대가 컸다. 그러나 문제해결과 대학생활 적응 과정은 적극적인 행동과 소극적인 행동으로 나뉘었다. 대학생활 적응 과정은 진로계획과도 관련이 있어서 소극적인

행동의 학생들은 필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직접적인 실천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 IV. 결론

본 연구는 H대학교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알아봄으로써 기회균형 선발전형에 정책적 제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의 입학성적과 대학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보았으며, 전체 재학생들과의 대학만족도를 비교하고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회균형 선발전형 학생들은 고교 시절 학업 수준을 대학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적응적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다른 입학전형 학생들과 비교해보면 기회균형 선발전형 학생들은 주로 낮은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는 입학연도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학에서는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보다는 이들이 낮은 학업성취도 그룹에 속해 있다[5][19][20]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의 대학만족도는 전체 재학생의 만족도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H대학의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의 대학만족도가 전체 재학생들의 만족도 보다 높다는 것은 H대학이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에게 양질의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은 '전공교육'과 '취업지원' 부분에서 전체 재학생 평균보다 10점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H대학은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에게 적합한 전문교육과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회균형 선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기여도의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H대학 기회균형 선발전형이 주로 수시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대학 만족도가 일반전형 입학생들보다는 높은 경향이 있다는 [21]

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적 배려자유형으로 분류해서 다른 입학유형과 비교해보면 사회적 배려자유형의 입학생들의 대학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3]는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기회균형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당시에는 전공선택에서는 적성, 대학결정에서는 취업을 중요하게 여기었으나 입학 후 학업적 어려움에 대한 문제해결력과 진로에 대한 실천은 양극화되어 있었다. 전공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은 소수였으며, 다수는 의지와 관심은 표현하였으나 실천적인 행동에는 소극적이었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에 비해서 거점 국립대학에는 전반적으로 부모의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와[22] 기회균형 선발전형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소극적인 성향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3] 해석이 있다. 대학은 이와 같은 누적된 영향을 받아 현실에 대한 회피와 무관심의 태도를 가진 학생들의 성향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갖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H대학의 기회균형 선발전형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기회균형 선발전형은 다양한 배경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적 지위의 소외된 계층에게 불리한 조건을 배려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경쟁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대학 차원에서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의 진로 포부 성장 등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H대학의 기회균형 선발전형 모집 규모 확대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을수록 중도탈락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23][24]. 이에 따라 H대학이 현재와 같이 교육부에서 허용하는 기회균형 선발전형의 최대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우정민, 정다운, "입학 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 관계 분석을 통한 대학입학사정관제도 실효성 고찰," 입학전

형연구, 제1권, pp.153-179, 2012.

[2] 이희원, “서울대학교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입학생의 학업 성취 및 대학생활 분석 연구,” 가르침과 배움, 제32권, pp.12-17, 2016.

[3] 전홍주, 권현조, 조미숙, “기회균형선발 전형 입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교육문화연구, 제23권, 제6호, pp.87-111, 2017.

[4] 임진택, 조민경, 김효희, “대학입학전형에서 입학생의 다양성 연구,” 입학전형연구, 제4권, pp.23-56, 2015.

[5] 김현주, 김경미,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의 대학적응과 진로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pp.169-178, 2017.

[6] 김미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농어촌특별전형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5호, pp.269-302, 2014.

[7] 양은목, 서창호, 홍도원, 김종훈, “대학입학전형유형별 신입생의 입학 후 대학생활 비교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4권, 제4호, pp.437-448, 2016.

[8] 강창동,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사회적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28권, pp.83-113, 2007.

[9] 김순남, *대학 입학 정책의 국제 비교 연구 : 고교내신 산출 및 대입 반영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개발원 현안 보고 OR 2014-10, 2014.

[10] 이홍열, *한국의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1] 김혜원, *학생부종합전형제도에 대한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들의 인식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2] 강우진, “무엇이 기회균등 인식을 결정하는가?,” 한국정당학회보, 제19권, 제2호, pp.37-61, 2020.

[13] G. Liu, “Interstate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y,” NYUL Rev., Vol.81, p.2044, 2006.

[14] 박병영, 김미란, 한준, 김기현, 류기락, 이민주,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8-18, 2008.

[15] 김위정, 김양분,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누적적 매개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제47권, 제4호, pp.263-302, 2013.

[16] 교육부(2021.12.29.).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ce65d6da9dc9de2d53e0d04574f222e8&rs=/upload/synap/202201/2022.01.04\\_검색](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ce65d6da9dc9de2d53e0d04574f222e8&rs=/upload/synap/202201/2022.01.04_검색)

[www.moe.go.kr/sn3hcv/doc.html?fn=ce65d6da9dc9de2d53e0d04574f222e8&rs=/upload/synap/202201/2022.01.04\\_검색](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ce65d6da9dc9de2d53e0d04574f222e8&rs=/upload/synap/202201/2022.01.04_검색)

[17] 이제봉, “대학교육에서 기회균형선발제의 근거와 쟁점,” 교육실천연구, 제8권, 제1호, pp.125-143, 2009.

[18]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ui\\_pnh/unt/unmcom/RdViewer.do](https://www.academyinfo.go.kr/ui_pnh/unt/unmcom/RdViewer.do). 2022.1.5. 검색

[19] 남궁경현, 이승아, 정다운,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K 대학 2009~2014 학년도 입학생을 중심으로,” 입학전형연구, 제4권, pp.57-91, 2015.

[20] 박소연, 이승아, 정다운, “입학전형유형에 따른 계열별 학업성취도 추이 분석,” 입학전형연구, 제6권, pp.99-124, 2018.

[21] 전경애,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508-517, 2012.

[22] 이광현, 권용재, “대입제도 쟁점분석: 수시와 정시 입학생들의 소득수준 비교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2호, pp.107-118, 2021.

[23] 정제영, 선미숙, 정민지,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준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제16권, 제4호, pp.57-76, 2015.

[24] 구성우, 문명현, 김병주,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기관 변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4호, pp.225-250, 2016.

저자 소개

최 윤 희(Yoon-Hee Choi)

정회원



- 1994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문학사)
- 199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교육학 석사)
- 2011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3년 4월 ~ 현재 : 한밭대학교

교육품질관리센터 초빙교수

〈관심분야〉 : 교육인증, 역량진단, 자기효능감

임 준 목(Joon-Mook Lim)

정회원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공학사)
- 1990년 2월 : KAIST 산업공학과(공학석사)
- 1994년 2월 : KAIST 산업공학과(공학박사)
- 1994년 3월 ~ 1997년 2월 : 강릉

원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조교수

- 1997년 3월 ~ 현재 : 한밭대학교 창의융합학과 교수  
<관심분야> : 빅데이터분석, 융합교육, 문화콘텐츠기획 및 정책